

## 다카야마의 역사: 도쿠가와 막부가 직접 지배하던 시대

에도 시대(1603~1867)에 에도 막부가 일본 전국을 통치하던 무렵, 다카야마는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았다. 다카야마는 5 개의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위치에 있었다. 또한 미야가와 강에 접해 있기 때문에 다카야마에서 생산된 목재를 미야가와 강을 통해 도야마로 보내고, 거기에서 다시 일본 각지로 운반했다. 풍부한 광산과 울창한 삼림 덕분에 다카야마는 특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1692년, 막부는 도로와 수로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카야마를 통치하고 있던 가나모리 가문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하게 되었다. 또 다카야마성을 파괴, 철거하고 무사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히다국의 목수 및 목공 장인들은 에도 시대에 전에 없던 번영을 누렸다. 이미 ‘히다노 다쿠미’(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히다 지역의 목공 장인)로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그들은 나라와 교토에서 웅장한 사원을 건축했다. 또한 유력한 무사 가문의 저택을 짓거나 나무로 조각한 네쓰케(기모노 오비에 물건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다카야마에는 일본술을 빚는 양조장이 50 채 이상 존재했으며 수많은 견직물업자, 대금업자 등이 활동했다. 이처럼 문화의 중심지로 번영한 다카야마는 ‘작은 교토’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 명칭은 지금도 통용된다.